

### 지단 '멋진 퇴장'

마지막 연봉 74억 유·소년 위해 쾌척



2006 독일월드컵축구 결승에서 '박치기 사건'으로 그라운드에서 불명예 퇴장한 '아르사케 마에스트로' 지네딘 지단(35·프랑스)이 현역 은퇴 직전 소속팀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에서 받을 수 있는 마지막 1년치 연봉 600만 유로(74억원)를 유소년 후배들을 위해 내놓았다.

지단은 현역 시절 마지막으로 몸담았던 구단을 위해 2006-2007년 시즌 연봉은 단 1유로도 손대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단은 레알 마드리드와 2007년 7월까지 계약이 돼 있었다. 지단이 고사한 연봉은 레알 마드리드의 유소년 육성 사업 등에 쓰여질 것으로 알려졌다.

### “어르신 건강축제 場 만들겠다”

6일 '어르신체육대회' 개최

오주 광주시생체협의회장



“전국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대회인 만큼 어르신들이 삶에 활력과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유익한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6일 오전 10시 광주시 서구 영주체육관에서 '제1회 광주광역시생체협의회 오주(67)회장은 “1회 대회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무리가 가는 체육종목보다는 함께 즐길 수 있는 레크레이션 위주로 종목을 위주로 건강과 즐거움을 함께 느끼도록 하겠다”고 운영 계획을 밝혔다.

광주광역시 4개구에서 3천여명의 어르신들이 참가할 이번 대회는 체육, 문화, 화합 등 세마당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사물놀이와 음악 줄넘기 등으로 식전행사를 통해 분위기를 고조시킨 뒤 본격적인 체육마당이 펼쳐진다. 체육마당은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체력을 감안해 생활스포츠와 건강 율리프, 건전놀이 경연대회로 꾸며진다.

오 회장은 “최근 저출산과 급격한 노령화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노인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어르신 건강대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박람회 광주시장도 어르신들의 여가 활용과 건강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 향후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 될 것이다”고 말했다.

### 3선 교육위원, 17년만에 교단 복귀

고진형씨 목표공고 평교사로



3선 전남도교육위원으로 의장까지 지낸 고진형(57)씨가 17년만에 평교사로 교단에 복귀한다.

고 위원은 31일자로 교육위원 임기를 마치고 내달 1일부터 목표공고 과학(생물)담당 교사로 근무하게 된다. 고 위원은 1989년 무안고에서 교편을 잡던 중 전교조 활동과 관련해 해직된지 17년만에 교단에 복귀하는 것이다.

전교조 전남지부장을 지낸 고 위원은 해직후 1995년부터 전남 제 4선거구 교육위원으로 3선위원을 지냈으며 2003~2004년 전남도교육위원회 의장을 지내기도 했다.

고 위원은 정부의 전교조 교사 복직 방침에 따라 교단에 돌아오기까지 마음을 먹고, 올해 교육위원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고 위원은 “1989년 해직되면서 반드시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는 약속을 지키게 돼 기쁘다”며 “부족한 점은 참교육의 열정으로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 화촉

- ▲고촌남(동강대 학술원장겸 교수)씨 차남 관호군 정한채씨 장녀 선미양=2일(토) 오후 1시 광주서석교회 분당.
- ▲양정현(해남군 육천우체국장)씨 차남 준주(한국은행)군 김정남(전 기업은행 지점장)씨 장녀 채민양=2일(토) 오후 1시 서울 한국은행 강남본부 11층 강당.

#### 알림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권상담=월~금 오전9시~오후5시, 국번 없이 1331
- ▲변호사 공재원 법률사무소 토요 무료법률상담=매주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 사무실 223-2100
- ▲비둘기가정폭력상담소 무료상

- 답=가정 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각종 상담. 직접 상담은 전화나 메일로 사전예약 매주 목·금요일, 652-1366, nam9939@dreamwiz.com
- ▲(사)이주가족복지회 긴급지원 및 상담=동남아 결혼이민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및 문화강좌, 363-2963, www.ejufamily.com 문화강좌는 월·금 오전 10시~12시, 수 오전 10시~오후 3시(점심 제공)
-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리 실시=직접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문의 363-2240

#### 동창·동문회

- ▲광주지산초 제 38회 동창회(회장 최중태) 모임=2일(토) 오후 7시 무등골.011-620-5729
- ▲강진계산초교 14회 동창회(회장

- 김상삼) 모임=3일(일) 오후 7시 강진군 선전면 석정가든, 016-604-8492
- ▲광주 서강고 제 6회 동창회(회장 박용기) 모임=1~2일 무주 코비스 콘도미니엄 대면회장, 063-322-6411~6
- ▲광주사대부중 제 4회 동창회(회장 전성수) 모임=4일(월) 오후 7시 맛갈정, 226-1410
- ▲광고 제7회 동창회(회장 천경중) 모임=7일(목) 오후 6시30분 동창회 사무실.

#### 중친회

- ▲창원향씨 광주전남 중친회(회장 황양선) 모임=2일(토) 오전 11시 제일오피스텔 19층 연회장, 234-5666~7
- ▲광산이씨 상서공파 필문회(회장 이태교) 모임=5일(화) 오후 6시

- 30분 우미추어탕.369-1171.
- ▲김남김씨 광주 중친회(회장 김형만) 모임=8일(금) 오후 7시 만수회관.223-1683

#### 향우회

- ▲재광 곡성군 삼기면 향우회(회장 김재정) 모임=3일(일) 오후 7시 폭지광 다슬기.523-1977

#### 모집

- ▲남구레고교육센터 교육생 모집=메이비집(12~48개월)·스킬과정(5~7세)·테크닉과정(초등~중1·2년)·로봇과정(초등 2년 이상·중학생) 교육생 모집.본선동 삼익2차 APT.문의 654-4113
-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수상 인명 구조원 일반과정 교육생 모집=만 18세 이상 기본 영법 200

m 가능. 접수는 9일 오후 2시까지 지사 홈페이지(http://gwanju.redcross.or.kr). 문의 521-0545.

▲전남도 광양평생교육관 고입검정고시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성인대상 고입 검정고시 준비생 모집. 12일부터 3개월간 6과목 운영. 문의 061-794-5681~3

▲쌍촌종합사회복지관, 교육생 모집=한식·양식·중식·일식, 미용, 제과·제빵, 피아노, 컴퓨터 기초과정 및 자격증반. 문의 375-0035~6

▲적십자사 수지침 봉사회 회원 모집=수지침 요법을 배워 사회 봉사에 참여할 분.무료. 018-610-3360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 가사도우미 무료훈련생 모집=여성 대상으로 훈련 기간은 11월~15일까지.

▲사진회원 모집=사진 촬영에 관심이 있는 자로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정기 현장 촬영. 010-3638-0289

▲정영애씨 별세 이준박(전 광주일보 논설위원)씨 모친상=발인 2일(토) 오전 9시 금호장례식장 401분향소, 227-4383.

▲양정임씨 별세 이창은(은뜰전기)·창수(한국농촌공사 곡성지사)·복희·영옥씨 모친상=발인 2일(토) 곡성장례식장, 016-618-0834

▲송근순씨 별세 김병기·병주·병용·병재·병인·병안씨 모친상 최길전·양정열·기우호씨 빙모상=발인 1일(금) 그린장례식장 7분향소, 250-4407

▲김복선씨 별세 임종철·종안·강원·영석씨 모친상=발인 1일(금) 무등장례식장 102호.515-4488

▲송근순씨 별세 김병기·병주·병용·병재·병인·병안씨 모친상 최길전·양정열·기우호씨 빙모상=발인 1일(금) 그린장례식장 7분향소, 250-4407

▲정영애씨 별세 이준박(전 광주일보 논설위원)씨 모친상=발인 2일(토) 오전 9시 금호장례식장 401분향소, 227-4383.

▲양정임씨 별세 이창은(은뜰전기)·창수(한국농촌공사 곡성지사)·복희·영옥씨 모친상=발인 2일(토) 곡성장례식장, 016-618-0834

## 대한민국 '산악대상' 광주 루팔벽 원정대

이성원·이현조·김창호대원 등 3명... '고산등반'도

“난이도 중심 登路주의 추구 '신루트' 개척” 성과

지난해 지구상 최장(길이 4,500m)의 거벽 '루팔대장벽'에 올라 세계 산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대한산악연맹 광주시연맹의 '한국 남가파르브(8,125m) 루팔대장벽 원정대' 대원들이 '제7회 대한민국산악상 대상'과 '고산등반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산악연맹은 지난달 29일 대한민국산악상 심사위원회를 열어 '산악대상' 수상자로 루팔대장벽 원정대 이성원(45·광주산악연맹 이사) 대장과 등정자인 이현조(34·전남대산악회0B)·김창호(37·세레포레 등산아카데미) 대원 등 3명을 뽑았다. 산악대상은 지난해 한 해동안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산악인에게 주어진다.

12명으로 구성된 이 원정대는 아울러 해외 고산이나 거벽 난이도 등반에서 큰 성과를 올린 산악인 또는 산악단체에 주는 '고산등반 부문' 수상자로도 선정되는 영광을 함께 안았다.

이성원 원정대장은 “광주시연맹이 높이 위주의 등정(登頂)주의에서 탈피해 난이도 중심의 등로(登路)주의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결

과”라며 “그동안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았던 광주·전남 선후배 산악인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주시산악연맹은 지난 2000년 세계 최초로 8명의 등정자를 한꺼번에 배출한 '한국K2(8,611m)원정대'를 주관하고 2004년 로체남벽에 대원들을 파견하는 등 히말라야 개척등반을 주도해왔다.

지난해 루팔대장벽 원정대도 K2 대원 4명과 로체남벽 대원 7명 등 고산 및 알벽등반 경험이 풍부한 클라이머 12명으로 구성됐다. 대원들은 지난해 4월 12일 파키스탄으로 출국해 폭풍설과 눈사태 등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94일만인 7월 14일 밤 11시(현지시간) 남가파르브 루팔대장벽 정상에 올랐다.

루팔벽은 표고차 4천500m의 대암벽으로 대원들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35년만에 정상에 발자국을 남겼다. 세계적인 산악인 라인홀트 메스너가 지난 70년 처음으로 등반에 성공한 이후 12개의 원정대가 도전에 나섰으나 모두



'대한민국 산악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광주시산악연맹 '2005 남가파르브 루팔대장벽 원정대' 이성원(가운데) 대장과 이현조(왼쪽)·김창호 대원. 지난해 7월 14일 등정에 성공한 뒤 귀국했을 당시의 모습이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고배를 마셨다.

광주시연맹 대원들의 성과가 더욱 의미가 깊은 것은 이들의 등정 루트가 메스너가 올랐던 길과는 완전히 다른 '신루트'였다는 점이다. 이 대장은 “일반적으로 산악계에서는 캠프지와 등반루트의 3분의 1 이상이 다르다면 신루트 개척으로 인정해주고 있다”면서 “지난해 광

주 원정대가 올랐던 루트는 경지와 계곡 위주의 초등 루트와 70% 이상이 다른 능선길이었 고 고소 캠프(4개)도 3개가 다른 곳에 위치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원정대는 내년에 메스너를 초월해 루팔벽 등정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피할 방침이다. /정호식기자 who@kwangju.co.kr

### “한 손 잃은 아픔, 골프 통해 깨끗이 씻었어요”

LIG손해보험 광주 백마대리점 오운수 설계사



“비록 한 손은 없지만 골프를 통해 자신감을 얻고 보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LIG손해보험 광주서부지점 백마대리점의 오운수(40)씨는 일반인도 어려워하는 골프를 왼손만으로 자연스럽게 하는 보험설계사다.

오씨는 20대 초반 프레스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고로 오른손을 잃었다. 1996년 보험 영업 무대에 뛰어들어 오씨는 2002년 골프를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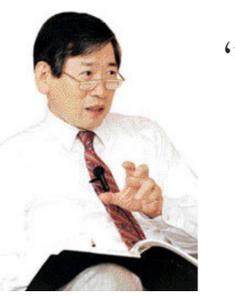
오씨는 “처음에 먹고 살길을 찾기

위해 보험 영업을 시작했다”며 “운동 부족도 해결하고 남들이 하지 못했던 것에 도전하기 위해 골프를 시작했고 이를 통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골프 연습장을 찾았다는 오씨는 지난해 6월 미국골프지도자협회(PGTCA) 티칭프로 자격증을 따기도 했다.

오씨는 “골프를 치면서 개인 사업가와 의사 등을 고객으로 만날 수 있었다”며 “상해·질병 보험 외에 ‘출인원 보험’도 팔면서 고객층을 넓혀갔다”고

말했다. 오씨는 “처음 만난 고객에게 자료를 왼손으로 건네주거나 악수를 하면 건방지다는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다 이해를 했다”며 “영업 실적이 특별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지만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고 덧붙 였다. /장필수기자 bungy@



“인간 박정희 다정다감 독재라는 용어는 경솔”

### ‘박정희를 말하다’ 펴낸 김성진 前장관

1970년대 청와대 대변인과 문화공보부 장관 등을 지낸 김성진(75)씨가 앞에서 지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조명한 ‘박정희를 말하다’를 펴냈다. 독재자인가, 영웅인가를 두고 한국 현대사에서 끊임없이 논쟁이 일고 있는 인물을 인간적 측면에서 바라보자는 취지에서 발간했다는 것이 김씨의 설명.

그는 “지식인과 공직자는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며 “오늘의 진실을 용기 있게 말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진실을

정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간 박정희는 다정다감한 사람이었다”며 대통령 집무실에서 “내가 초야로 들어가 자서전을 쓰게 될 경우 도와주겠나?”라는 말도 들었다고 전했다.

김씨는 “오직 한 가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우리의 민주주의는 미완성품이라는 점”이라며 “완부 로 독재라는 용어를 경솔하게 쓰지 말아야 한다”고 적었다.

### 조선대 법대 60년만에 첫 여교수 임용

이노홍 교수·헌법 등 강의



조선대 법과대학이 학과 개설 60년 만에 처음으로 여교수를 임용했다.

조선대 이사회는 지난달 30일 이노홍(여·37·사진) 법학박사를 법대 교수로 임명했다. 이 교수는 인천 출신으로 이화여대에서 헌법학 박사를 취득했다. 2002~2003년 미국 U.C 버클리 법과대학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했으며, 2004년부터 최근까지 헌법재판소 연구원을 역임했다.

이 교수는 앞으로 헌법·헌법소송법 강의를 맡을 예정이다. /황태종기자 hwangtae@

이 교수는 “여성 법학도들이 최근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여성 교수가 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학과 발전과 로스쿨 유치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로스쿨 유치를 위해 지난해부터 교수 특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조선대 법대는 이의 한지영 박사, 권상로 박사, 정민수 전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법대 교수로 함께 임명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

#### 인사

- ◆외교통상부 ▲전라남도 국제관계자문대사 신국호
- ◆영광군 <5급(승진) ▲염산면장 한행석 ▲낙월면장 서동석 <5급(전보) ▲홍무과장 김정희 ▲재무과장 황진욱 ▲종합민원과장 정노성 ▲문화관광과장 김재운 ▲사회복지과장 서택진 ▲재난안전 관리과장 오삼국 ▲주민자치과장 문운옥 ▲의회사무과장 박래학 ▲영광읍장 정광석 ▲백수읍장 정용기 ▲홍농읍장 최홍길 ▲대마면장 조경태 ▲양희서 불갑면장 ▲군남면장 유영걸 ▲법성면장 이정규 ▲묘량면장 이진산 ▲지역경제과장 이현준
- ◆남양유업 <승진> ▲상무이사(자재) 한현근 ▲상무이사(홍보) 성장경 ▲상무(보) 중앙연구소장 장치훈

#### 나훈 송정농협 조합장

‘농협이동상담실’ 운영



송정농협(조합장 나훈·사진)과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정찬인)는 지난달 30일 농협 조직장(영농회 장·부녀회장) 독능가를 대상으로 ‘농협 이동상담실’을 운영했다.

**넓고 평안한 무등장례식장**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구 초전) 대포: (062) 515-4488

**광주에서 30분 아름다운 청계공원 기적남묘특별분양**  
 ☎ (062) 521-1100